

### 3. 내가 겪은 여순사건③

증언자: 김 0 0 (여)

채록정리: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지역사분과

증언시기: 1990년 2월 25일

이 사람 역시 가명으로밖에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으며, 여순사건 당시 활동했던 내용을 증언해주었다.

나는 본래 서울이 고향이다. 어렸을 적에 당시 연세대학교 출신이시던 삼촌이 순천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는데 우리 가족은 그분의 연고로 이곳에 터를 옮기고, 나의 부친께서는 행동에 목욕탕을 경영하셨다. 이곳에서 나는 중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해방 2년 전에 결혼을 하였다. 남편은 당시 만주 봉천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본기계제작소’라는 회사의 사원이었다.

그는 회사의 모범 사원이었다. 그는 결혼을 위해 왔다가 결혼하자 곧바로 다시 함께 만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나는 ‘하세’라는 사람(이 사람은 대만 출신의 일본인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척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다)을 만났고, 우리는 그가 제공하는 사원주택을 이용하였다. 우리의 신혼은 매우 좋았고 행복하였다. 그곳에서 이웃에 많은 부인들을 만났다. 그들은 주로 일본인들이었다. 나와 남편만이 조선인이었지만 일본인 사장에게 신뢰받는 직원이었으므로 그들이 누리는 혜택의 일부를 함께 누릴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사장부인이 나를 그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추천했고 나는 그의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당시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 청진형무소에서 막 풀려난 순천 출신 ‘정기주’라는 미혼의 청년이 있었다. 그는 나의 남편과 어렸을 적부터 친구관계였다. 그는 대단히 뛰어난 청년이었으며 의기의 표본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그 사람은 우리가 근무하던 회사에 오게 되었다. 그는 부서는 다르지만 20여 명에 불과하던 조선인 근무자 사이에서 중심적인 업무를 맡게 되었다. 정기주 씨가 회사근무를 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근무한 것도 당시 회사에서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신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일본인 사장인 ‘하세’의 개인적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대만 출신의 일본인 노무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기도 한 사건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이 사건은 사장의 조선인에 대한 우대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1945년 미국의 일본 본토 원폭투하하는 그곳에서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나타나게 하였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폭투하라는 사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때 정기주 씨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우리는 조선인이다. 개인적 감정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이곳에서 일본인 밑에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그의 어조는 매우 단호했고 눈빛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기주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8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20명의 조선사람과 함께 봉천역을 출발하였다. 신의주에 접해 있는 만주의 안동을 거쳐 신의주 역전에 도착하였을 때 거리에 걸려 있는 태극기를 목격하였다. 우리는 거리에서 주먹밥을 나누어주는 동포의 따뜻한 마음과 조국애를 느꼈다. 우리도 그들에게 준비해간 밥을 나누어주었다. 8일 동안의 긴 여행 끝에 우리는 마침내 순천에 도착하였다.

해방 후 국내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20대 후반의 남편과 정기주 씨는 ‘민청’활동을 하였다. 그 활동의 주요내용은 새나라 건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그에 대한 실천이었다. 1946년 3·1절 행사의 준비를 하던 남편은 행사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던 중 체포되었다. 그리고 100여 일 만에 겨우 자유의 몸이 되었다. 나 역시도 당시 성악가였던 오경심(생목동 거주)

씨 등과 '여성동우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우리(여성동우회)는 14연대 병사들의 급식대활동을 하였다. 2~3일 정도의 짧은 활동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나는 순천북국민학교에 붙들려 있다가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갈마골(지금의 저전동) 쪽으로 피해 있었다. 그동안 남편의 둘째 동생(사상적으로 분류하자면 중도우파 정도였을 것임)은 집 앞에서 진압군에게 총살당했다. 당시 순천의 여성들 중에서 14연대 병사들에게 “호박잎 하나라도 건네준” 사람은 모두 붙잡혀야 했다. 갈마골에서 피신생활도 며칠 후 끝났다. 나는 4살 난 아이와 함께 순천 시내로 잡혀왔다. 나중 아이는 시아버지를 통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나는 당시 임신 중이었다. 또 다른 나의 아이와 갇힌 셈이었다.

순천경찰서에서 예의 정기주 씨를 면발치에서 보았다. 뒤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그곳에서 고문으로 죽었던 걸로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할 정도로 고문이 가해졌다. 그 주된 이유는 부역활동의 내용과 부역가담자를 불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인간다운 수사관도 있었다. 다행히 나는 안모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심한 고문은 하지 않았다. 이후 나는 군사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이곳에서 한 달 복역 후에 다시 전주형무소로 이감되었다. 나는 그곳에서 두번째 아들을 출산하였다. 한편 형무소에서 여성동우회에서 함께 일하던 오경심 씨와 정기주 씨의 동생 정기태 그리고 김인순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모두 복역자였다. 또다시 나는 전주형무소에서 안동형무소로 이감되어 갔다.

한편 내가 여순사건에 연루되어 갖은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은 내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때 쇠창살이 없었다면 날아가고 싶었다. 꿈에도 그리워하던 남편의 편지를 받아보았던 것이다. 1950년 나는 형무소에서 수인번호 65번을 단 채 또 한 번의 비극을 맞아야 했다. 6·25로 형무소의 많은 시국관련자들이 거의 몰사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아이가 나를 살렸다. 당시는 형무소 내에서 출산한 아이를 직접 내가 보살피고 있었다. 바로 그 아이가 형무소장과 형무소에 전도를 위해 출입하던 어느 목사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1950년 7월 28일 안동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던 전 수인은 전쟁을 피해 대구형무소로 이감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형무소 당국의 여러 사정 때문에 형기가 5년 이상인 사람들은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7월 28일 새벽 호출을 받았다. 나는 각오를 하면서 수인번호 22번 아가씨(그는 애정문제로 집에 불을 지르고 옥살이하는 잡범이었다)에게 아이를 부탁하고 간수를 따라 나섰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의 소장과 목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대구에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그곳까지 길에서 겪은 고생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염천의 뜨거운 태양은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한 우리를 기차 지붕 위에서 아예 불태우려는 듯 하였다. 그때의 고생으로 내 아들은 형무소의 차거운 마루바닥에서 태어나 형무소 울타리 안에서 또 그렇게 죽어갔다. 아들은 에미를 살리고 그는 죽고야 말았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나는 형기를 채우지 못하고 풀려나게 되었다. 1951년 고향 순천에 돌아와보니 친정아버지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어 계셨다. 더욱이 친정의 3형제는 모두 죽고, 만이인 남편은 행방불명이 되어 있었다. 당시 남편은 전쟁이 일어나자 '산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출감 후 '요관찰' 대상이 되었다. 그후 남편은 1950년 무렵 하산하여 자수를 하였다. 그후 몇 년간 복역하다가 세상에 나와 저 세상으로 먼저 갔다.